



엄마의 외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계획 규탄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가운데, 평범한 두 아이의 건강과 가족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윤혜 대표가 삭발식을 감행하며 “NAP 폐지”를 외쳤다.

노형구 기자

한장총 미국서부지역 연합회 창립 “장로교 정체성 확립·위상 높이자”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미국서부지역 연합회가 창립돼 초대 대표회장에 이정남 목사가 취임했다.

지난 7월 16일 오전 10시 LA 한인타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은 만장일치 박수로 대표회장에 이정남 목사, 상임회장에 김병도, 최학량 목사, 운영회장에 김정호, 민종기, 박효우, 신승훈, 양수월, 정해진 목사 등을 추대했다. 공동회장은 김영구, 남상국, 서문운, 성종정, 엘리야 김, 이순천, 이정현, 조은철, 전재학, 최경남, 홍성관, 하태신 목사이며 부회장은 양병삼, 홍성표 목사, 총무는 이준우 목사, 부총무는 폴리 목사, 서기는 김병호 목사, 부서기는 김성곤 목사, 회록서기는 최경일 목사, 회계는 이철장로, 감사는 고재원, 김호, 주창호 목사, 사무총장은 김철수 목사가 맡게 됐다.

한장총은 1981년 예장 통합, 합동, 고신, 기장, 대신 등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됐으며 현재 20개 교단이 참여하는 장로교단 연합체다.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가 취임한 이후, 미국 4개 지역에 지부 형식의 지역 연합회를 창립하기로 공약했고 이날 첫 지부인 미국서부지역 연합회가 창립된 것이다. 창립총회에서 유 목사는 “일각에서는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파당을 하려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주에서도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축하하고 이준우 목사가 광고했다. 축도는 유중현 목사가 했다. 총회에서는 이정남 목사의 대표회장 추대 후 각종 안건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며 최학량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취임축하 순서는 김철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유중현 목사가 이정남 목사에게 취임폐 등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했다.

LA=김준형 기자

北 “탈북 종업원 송환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장애 조성”

북한 선전매체들이 지난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북한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

고 20일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강제여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글에서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이 매체는 “지난 10일 원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일부 북한 여성종업원들을 직접 만나본데 의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조선에 오게 됐다. 만약 이들이 랍지된 것이 사실이라면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성 국민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당국은 박근혜보수 정권이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에 대해 늦게나마 시인하고 사간진상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김련희 여성을 비롯해 강

평범한 엄마, “가정 파괴된다”며 NAP 폐지 외쳐

더민주당사 앞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 기자회견,
건강과 가족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윤혜 대표 삭발 감행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계획(NAP) 규탄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1시 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정책계획에는 50가지 이상의 성(Gender)을 인정하는 성 평등 정책,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법과 법률은 남녀 구분을 생물학적 성(sex)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양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남녀 구분을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성(gender)을 기준으로 삼는 성 평등을 담고 있다.

현재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성 평등 정책에 기반해 31가지 젠더를 승인 및 발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젠더 호칭을 부르지 않으면 125,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법원은 성 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에서 젠더를 ‘개인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건강과 가족을 위한 학부모연합 김윤혜 대표는 “국가인권정책계획은 젠더아이데올로기가 맞다는 것을 교육 사회제도를 통해 이념교육 시키려한다”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성 윤리로 세워진 가정의 질서와 가치는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지난 14일 퀘이어 축제에서 성기 모양의 키우 등 각종 음란물을 이번에도 판매했다”며 “국가인권정책에 들어가는 성소수자니까 음란물건 판매를 허용하고 다수의 인권도 보장 못하면서, 왜 소수자들의 인권만 침해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안도 담겨있다. 현재 한법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상정하고 있다.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의 했지만 5월 24일 부결된 한법개정안에는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안도 포함되었다.

김윤혜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 제1조 2항은 ‘국민’이 곧 국가임을 나타낸다”며 “헌법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곧바로 그녀는 “헌법개정안이 무산되자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을 통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녀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가능하나, 법률의 제정 없이 행정부 정책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려 한다”며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고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녀는 “이렇게 되면 이주민, 난민, 외국인 등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며 “현재 청와대에 난민법 폐지로 7만 명이 청원을 했다”고 전했다.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장형수 교수의 말을 인용한 그녀는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주권과 자유와 영토를 빼앗겨 고통을 당했다”며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자유

와 행복을 영원히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왜냐면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하면서 다시는 주권과 영토가 외국에 대해서 침범되는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헌법은 국가 주권을 국민으로 놓 밖아 다시는 주권과 자유와 영토를 외국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녀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가 이민자에게 특혜를 주는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는데, 왜 굳이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을 수용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녀는 “2030년 영국 인구의 15%가 무슬림이 된다는 통계 수치는 이를 보여 준다”며 “현재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 난민으로 인해 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아이의 엄마인 김윤혜 대표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삭발식을 진행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에 동성애에 동성혼을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289개단체연합), 전국학부모연합, 시민단체연합, 건강과 가족을 위한 학부모연합, 자체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이 참석했다.

노형구 기자

北, 대북 제재 등 영향 “2017년 최악 경제성장”

대북 제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북한이 지난해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을 추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7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에 비해 3.5% 감소했으며 1997년 26.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경제 성장 추이를 보면 2010년 0.5%로 ‘マイ너스’ 성장한 이후 2011~

2014년 1% 안팎 성장세를 유지했다.

북한 성장률은 2015년에 다시 -1.1%로 떨어졌다가 2016년 3.9%로 반등해 1999년(6.1%) 아래 최고를 기록했으나 1년 만에 다시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농산물과 수산물 생산이 줄어 전년대비 1.3% 감소했으며, 광업은 석탄 생산이 크게 줄어 11.0% 줄었다.

제조업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6.9% 감소한 가운데 경공업은 식료품 등이 늘어 0.1% 증가했다.

중화학공업은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10.4% 감소했다.

전기기기수도업의 경우 화력발전은 늘어났으나 수력발전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2.9%.

줄었고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4.4% 줄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정부서비스(관행 등)가 늘어 0.5% 성장했다.

2017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6조 6억원으로 한국의 2.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 4천원으로 한국의 4.4% 수준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55억 5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5% 감소했다.

수출은 17억 7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37.2% 감소한 반면에 수입은 37억 8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2017년 남북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99.7% 감소한 9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2016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반출입 실적이 거의 없었다.

서울평양뉴스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이승만 대통령 서거53주기,
선민네트워크 제6차 대국민 호소문

86민주 세대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목사)가 전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53주기를 맞아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

통해 “세월을 지내보니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를 앞서 보는 혜안에 감동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유도국가 건설하자면서 인류를 향후했던 공산주의의 세계사적인 거대한 흐름에 맞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이를 성

취해 낸 것이야 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업적”이라며 “그 결과 우리민족 전체의 공산화가 저지되었고 우리의 자유와 생명이 지켜졌다”고 했다.

선민네트워크는 “만일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과 결단이 없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조국통일의 소원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

김씨 3부자의 조상화 아래서 우리의 자유와 인권이 박탈당한 체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부르면서 폭압과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었을 것”이라 말하고,

“아무리 자식에게 뭉친 짓을 했던 아버지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그 한 이유만으로도 예를 갖추는 것

이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효의 전통”이라며

“독재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가 분명입니다만 그 공과를 떠나 ‘대한민국’의 건국의 공과를 기리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된 참된 도리가 아니”라 했다.▶관련성명4면

박용국 기자

구름과 바다에서(고전 10:1-5)



푸른교회 조성노 목사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므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사마의 헛별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흥해를 건넜다는 뜻입니다. 2절도 마찬가집니다. 바울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에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에는 모세에게 속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흥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약의 흥해, 건너를 신약적으로 보면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씹어 바르며 세례를 받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흥해를 통과하며 세례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세례는 내 과거, 나의 옛 사람을 물에 수장했다, 물로 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흥

해를 통과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과거에 우리는 애굽에서 마귀의 노에, 세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흥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흥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흥해를 건넜다는 데는 옛 사람을 수장했다,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물에 씻었다는 의미 이외에도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흥해가 배수의 진인 것입니다. 한 번 흥해를 건너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과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해안 길을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굳이 흥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광야가 위험하고 거칠고 메마르고 척박하다 해도 하나님인 절대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헐벗지 않게 하시고 목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정말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하며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음식입니다. 1-3절입니다. “[1]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십오일이라 [2]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

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걸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성인 남자만 60만입니다.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었고, 짐승도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모세와 아론에게 물려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살이를 했을망정 배불리 먹었는데 사막에서 굶어 죽게 한다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울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광야가 위험하고 거칠고 메마르고 척박하다 해도 하나님인 절대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삼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해갈하게 하셨습니다. 반석의 물이 신령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굶어죽은 사람도 없었지만 물이 없어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음식인 만나쁜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 하나님께 반드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았며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만나만 준다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이 아닙니다. “[5]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6]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애굽생활이 더 좋았다면 돌아가자고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만나만 먹으니 재미없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는 따분하고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자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의 주식도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는 왜 말씀뿐일까요? 그것이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만나에 불평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 밤낮 만나뿐이냐며 모세에게 대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лем을 보내십니다. 만나에 불평하지 맙시다. 더욱 말씀에 충실히합시다. 말씀이 혹독한 무더위와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입니다. 만

나가 하나님 백성의 주식임을 기억합시다.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리” 시내 광야는 평균 기온이 지금도 43도입니다. 그 사막에서 무려 40년을 버티며 이스라엘은 유랑했습니다. 그려니 물에 대한 절실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민수기 20장 2절 아닙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삼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해갈하게 하셨습니다. 반석의 물이 신령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굶어죽은 사람도 없었지만 물이 없어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음식인 만나쁜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

마르지 않으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삼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료를 마셔야 해갈됩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아닙니다.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신령한 음료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삽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령한 음식이고 음료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광야 길을 완주하려면 신령한 음식인 말씀을 먹고, 신령한 음료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살았듯이 우리도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강건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발: 일간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My KIDS MY KIDS 컴퓨터 참여방법!

① 전세계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접속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② 모바일 www.mykids.wv.or.kr을 접속해보세요.

www.mykids.wv.or.kr

월드비전 마이키즈

</

한동대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창의융합설계 아카데미' 성료

한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융환기 교수)는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 까지 교내에서 소외된 90%가 더 많은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창의융합설계 아카데미를 열었다.

올해로 개최 11주년을 맞은 이번 아카데미는 적정기술을 통해 과학기술의 시대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돋고자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 13개 대학에서 모두 15팀이 참여했고 적정기술 적합성, 지속 및 보급 가능성, 기술적 우수성, 발표 및 팀워크를 평가해 수상팀을 선정했다.

시각 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한 표정석(부산대), 노창호(아주대), 김은영(아주대), 유현아(한동대),

김지현(금오공대)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은 산간 오지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원격 감시할 방법을 설계한 김수연(아주대), 장수필(한국기술교육대), 김준섭(한동대), 조서연, 최미혜(한동대) 학생이 받았다. 알로(Ailo) 껍질 벗기기를 위한 공학 기술을 설계한 나성수(한남대), 이지현(홍익대), 한민재(아주대), 이정승(고려대) 학생이 은상을 차지했다.

동상은 지하수에 비위생적 영향을 없애는 친환경 화장실 개발한 정현우(금오공대), 정제혁(금오공대), 최재훈(금오공대), 김지호(금오공대) 학생이 받았다.

이 아카데미에는 학생들뿐 아니라 연구자 및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투터가 되어 아카데미 기간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멘토링 및 평가를 해줄 뿐 아니라 다양한 강의를 제공했다.

한국로버트버너 조성철 기술위원장은 '과오스 오지 탓통마을 태양광 및 소수



아카데미를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

한동대 제공

력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을 주제로 강의했다. 순문탁 박사(Joy Institute of Technology)는 '오픈 포고와 일곱 기둥'을 주제로, 한동대 이원섭 교수는 '인간 중심 설계'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융환기 센터장은 "소외된 90%의 사람

효성중앙교회 청년 비전트립팀, 영국 다녀오다

인천에 위치한 효성중앙교회(담임 정연수 목사) 청년들이 지역 올타리를 벗어나 세계로 눈을 돌려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담당 목회자(음식원 목사, 박승룡 전도사)를 포함한 청년 17명, 총 19명으로 구성된 이번 비전트립은 6월 25일~7월 5일까지 10박 11일간 영국의 잉글랜드 런던 및 근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등을 여행했다.

작년 창립 60주년 기념사역으로 시작된 비전트립은 '넓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미국 서부를 다녀온 것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 비전트립은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보다 큰 꿈과 시선을 갖자는 목표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좁은 길을 찾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여행지 영국은 고대 로마인들의 건축 양식, 중세 카톨릭 대성당, 국교회 사원 등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최첨단 현대 기술과 오랜 전통 양식, 수려한 자연 경관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런던 웨스트엔드에서는 미국 브로드웨이로 수출한 오리지널 뮤지컬이 매일 밤 공연되기도 한다. 조은식 기자



인천 효성중앙교회 제공

한신대, 이승정 목사 장학금 전달식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연규홍)는 지난 7월 19일 오후 4시 오산캠퍼스 총장실에서 이승정 목사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승정 목사가 500만원을 한신대 연규홍 총장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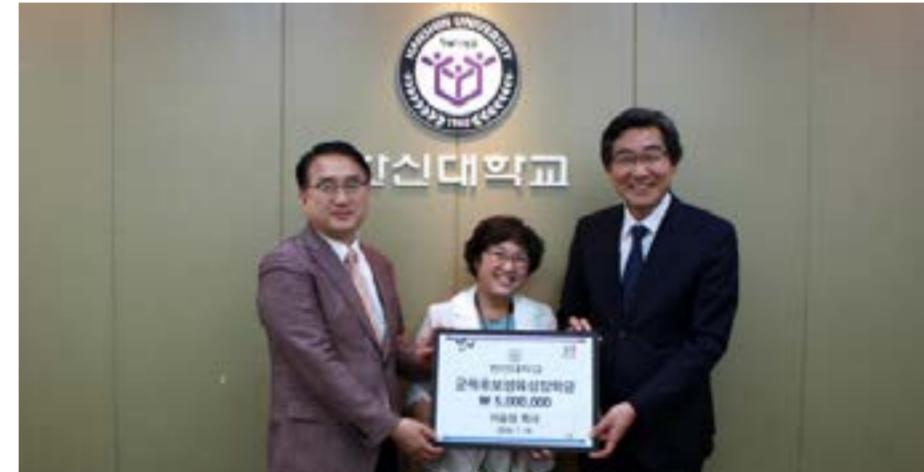
이승정 목사는 "아들이 한신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 연규홍 총장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신학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받았던 은혜를 반드시 갚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아들이 향후 군복 예정으로 군선교의 마중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연규홍 총장은

"장학금을 받게 될 군복 후보생들에게 뜻을 전달하고, 한신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은식 기자



한신대

이영자, 밀알복지재단에 장애아동 치료비 기부

개그우먼 이영자가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들의 치료비로 써달라며 최근 매니저와 함께 출연한 광고의 모델로 전액을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이영자의 기부는 지난 4월 방송된 MBC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봄날의 기적' 출연이 계기가 됐다. 당시 MC를 맡은 이영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된 장애아동들의 사연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한 바 있다. 이영자는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기 위해 최근 매니저와 함께한 첫 광고 모델로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후원금은 밀알복지재단에 전달돼 치료나 수술이 시급한 저소득 장애아동 7명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들은 꼭 받아야 하는 치

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영자씨의 따뜻한 나눔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 장애아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993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립된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국내 45개 산 하시설을 통해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과 아동,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18개국에서도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지난 4월 MBC 장애인의 날 특집 '봄날의 기적'에 출연중인 이영자.

밀알복지재단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 건립을”

전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53주기를 맞이하는 86 민주화세대 모임 선민네트워크 일동 대국민 호소문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청춘을 보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민했던 86세대가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탄생되도록 기여한 전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53주기를 맞이하여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광화문광장에 건립되기를 국민여러분께 제 6 차 청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민족이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된 감격스러운 광복절이며 1948년 8월 15일은 세계 속에 중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탄생한 기쁨의 날입니다. 또한 1875년 3월 26일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탄생일이며 1965년 7월 19일은 90세의 나이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체 명명지 하와이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서거일입니다. 올해는 이승만 대통령의 탄생 143주기이며 또한 서거 53주기를 맞는 해입니다. 과거 독재타도라는 합성으로 민주화의 열방으로 격동의 시절을 지나온 저희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생)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특히 4.19의 정신을 배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독재에 향거하는 학생들에게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아주 고악하고 나쁜 독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통일의 민족적 염원을 무시한 체 남한의 단독정부를 세움으로 분단의 역사를 고착화시킨 장본인이며 친일세력들과 결탁하고 침략자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 땅에

민주화가 정착된 지 30년에 이르는 지금, 사물의 이치를 더듬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불혹의 나이를 지내면서 또한 부끄러웠고 절망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변모되었음을 목도하며 지나온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시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가 놀라는 경이로운 발전을 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기 위해 고전분투해온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중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탄생케 한 건국대통령의 공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을 지나보니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를 앞서 보는 혜안에 감동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유토피아 건설하자면서 인류를 현혹했던 공산주의의 세계사적인 거대한 흐름에 맞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이를 성취해 낸 것이야 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업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민족 전체의 공산화가 저지되고 우리의 자유와 생명이 지켜졌습니다. 만일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과 결단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조국통일의 소원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 김씨 3부자의 초상화 아래서 우리의 자유와 인권이 박탈당한 체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부르면서 폭압과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위인들



선민네트워크

아무리 자식에게 뜻된 짓을 했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그 한 이유만으로도 예를 갖추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효의 전통이었습니다. 건국 70년이 되는 ‘대한민국’ 역사와 살펴볼 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삶은 좋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이상 오늘 날의 부강한 ‘대한민국’이 시작되도록 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독재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가 분명입니다만 그 공과를 떠나 ‘대한민국’의 건국의 공로를 기리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된 참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G20 국가로 우뚝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묻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광장인 ‘광화문’광장에는 ‘조선’의 위인만 있고 ‘대한민국’의 위인은 없느냐?”, “왜 ‘대한민국’의 화폐에는 ‘조선’의 위인만 있고 ‘대한민국’의 위인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를 다녀보면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국가적 광장에는 대부분 그 나라를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위인들

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광장에는 ‘대한민국’ 건국의 인물들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정신을 기려 ‘대한민국’의 광장인 ‘광화문’광장에 그의 동상이 세워지기를 희망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친구들과 후배들은 저희의 주장에 대해 참으로 미련한 짓이며 심지어는 미친 짓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에 건립하자고 용기를 내어 청원하는 것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때문입니다. 이제 광복 73주년과 건국 70주년이 되는 2018년 순국선열께 감사하며 건국의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애국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청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대한민국’의 광장 ‘광화문’ 광장에 건립합시다!

“공영방송, 동성애축제 홍보 방송이냐”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지난 14일 서울광장(서울시 장 박원순)에서는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소위 ‘퀴어 축제’가 열렸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방송들은 어떻게 보도하였나?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KBS공영노동
유만석 목사

조합에서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KBS가 뉴스를 통해 보도한 것을 분석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평일보다 뉴스 시간이 짧은 주말인데도 동성애 관련하여 두 개의 아이템으로 보도한 것은, 균형성 차원에서 지나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보도는 대대적으로 하면서도, 그 반대자들이 별인 집회는 간략하게 언급했다고 평형성을 거론한다.

또 성소수자의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던지는 사회적 혐오감이 크다는 것으로 리포터를 마쳤는데, 사회적 논란거리인 동성애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미화하고, 퀴어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셈이 되었다고 질타한다.

이 성명서의 우려대로, 공영방송 KBS는 동성애 축제를 보도하는 모습에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으며,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무용론(無用論)을 제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국민들은 차라리 SNS(사회관계서비스망)와 현지에서 전하는 개별방송들이 더 사실적으로 보도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 다른 공영방송인 MBC는 어떤가? 이 방송도 두 개의 아이템으로 뉴스 방송을 했는데, 애에 동성애 축제 홍보방송에다가, 아이템 하나는 동성애자 부모 6명의 주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반면에 상업방송인 SBS는 동성애 축제를 소개하면서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전달하려 노력하였다. 전신(全身)을 다 보이게끔 다닌는 것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보도록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고요’ 어느 학부모의 반대 의견을 인터뷰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의 논란거리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동성애 옹호 언론 보도에 대하여 댓글을 단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을 다르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동성애가 성소수자의 정당한 인권이라면, 남녀 간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은 장애자들인가’ ‘이게 무슨 00성욕자들 행사인가’ 등 매우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러한 생각들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여론조사 기관인 “공정”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것에 의하면, ‘퀴어 축제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7.0%를 차지하였다.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퀴어 축제는 건전한 축제가 되지 못함을 간과한 것이다.

현재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동성애 퀴어 축제는 그야말로 뾰족과 음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남녀의 생식기 모양을 한 물건들이 판매가 되었고, 일반인들이 그런 반란(半裸)의 차림을 하면, 곧바로 현행법에 저촉될 복장들과 행위들이 버젓이 서울 시민들의 광장에 등장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행사를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들이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의 의식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치 동성애 홍보방송처럼 대대적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도 망각한 저급한 행위로 크게 지탄받아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을 믿지 않게 되었고, 애에 방송을 외면하는 국민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방송의 몫이다. 정권 따라, 시류(時流) 따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방송하는 것을, 국민들 가운데 누가 믿고, 공영방송으로 인정하려 하겠는가?

우리나라 방송은 특정 집단이나, 소수자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바르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다면, 이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설(私說) 방송이거나 자멸하는 방송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연요한 목사의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고통에 참여할 고귀한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빌1:29)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계심을 알았기에 어떤 시련을 당해도 절대 심장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님 안에서 힘을 더해주시오. 로마 감옥에서 체형당할 혈연에 처해있는 바울이 기뻐 하라고 거듭거듭 권고합니다. 마지막 힘든 순간에도 주님 만날 것을 바라보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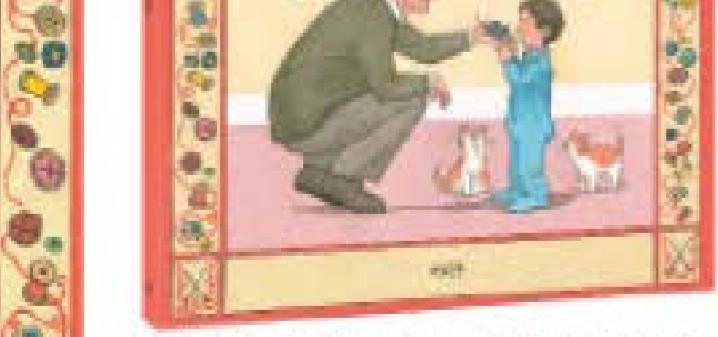
하고 이웃에게 잘못을 돌이키며 화평케 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옵소서.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 저지되고 있는 순간마다 주님의 아픔에 참여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하나님께서 저와 가까이 하시옵소서. 천사의 일곱을 가지고 성령님과 평안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첫 순교자 스테판같이 박해 속에서도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순교의 복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고초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놀라움과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볼

때 저의 모습도 예수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 때야 말로 갈보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 순간마다 주님의 아픔에 참여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하나님께서 저와 가까이 하시옵소서. 천사의 일곱을 가지고 성령님과 평안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요한 목사는 승실대, 승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잘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가 한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날고 해쳐서 더 이상 못 입을 치명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제, 날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이렇게 의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미친고, 오래되고, 불풀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미디어 아트제작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번호 02-7204-7050